

2017년 5월 29일, 성산읍 고성리 고성리경로당, 송정희 조사.
미상(여, 생년, 성산읍 고성리)

- 줄거리: 계모가 본처의 딸에게는 맛없는 콩만 먹이고 자기 딸에게는 맛있는 팥을 먹였다. 계모가 아무리 본처 딸을 괴롭히려고 해도 새들이 도와주는 이야기이다.

[조사자] 콩데기 뜻데기 틈나는 대로 하나만 골아줍서.

[제보자] 경 골으난 콩데기 뜻데기 말 알아잖저. 콩데기 그것도 다슴어멍 그자. 막 궂인 체 허고, 옛날 날레 널어놔두민 생이가 오랑 오도도 허게 까먹엉 다슴어멍이영 살양. 새가 후 그거 까먹어불민 나 오늘 우리어멍 오민 욕 든네가 무시거렌 골아 허고, 굽 터진 항에 다슴어멍이 다슴딸을 이제 주들리젠 물 질엉 오늘 물 질엉 노렌 ?득 지렌 허민 굽 터진 항에 물을 지어다 노민게 이제 엇일 거 아니. 엇이 민 일 가오랑 허카부덴, 물을 저물양 지어놓고 날레 널엉 저 다 헹 어떻 허민. 생이는 그 다슴애길 도와줄라고. 똑똑똑똑 강 생이 이제도 밥주리 생이가 들꿰를 노민 여물 다 먹어가민 똑똑똑 까그네 소굽에 지름 빨아먹고 술락허지 똑똑똑 까놔가민

“아이고, 요 새야, 요 새야, 그거 다 와그네 헤불민 우리 다슴어멍 오민 날 어떻 헹 사느넨.”

허민 파르릉허게 새가 으라개 오민 도와주젠 헌 깐 새난, 새 늘개로 체는 짹 뿌려 놔고 그디 쓸만 잊고, 게난 지금 현재로 말허민 그자 용현 사름 잘 웬다. 용현 사름 잘 웬는 건 절대 아닌디. 용현 사름 잘 웬다 뜻으로 그런 말로 낯인가 그런 전설이 잇인가 몰라. 자청비하고 남선비는 확실히 전설이 잇엉 심방도 이제도, 그걸 떨어동 궂을 빨리 허젠 허죽 경 안 혀연 막 궂허는 그 본풀이가 잇인 거. 진진허게 잇어.

[조사자] 경 헹 콩데기 뜻데기 어떻 헹마씨?

[제보자] 콩데기 뜻데기도 다 모르크라. 그거 아까 골으난 튼내젠 허난 그것도, 그자 다슴 어멍이엔 고생해난 거. 콩을 삶으나 뜻을 삶으민 뜻물은 맛이 잊고, 콩물은 맛이 엊주게. 게난 다슴애긴 콩으로 만든 걸 주고 이녁 난 애긴 뜻으로 만든 걸 주나. 이녁 난 애긴 뜻물을 주난 얼굴 색깔도 검어지고 잘 안 웬고, 콩으로 만든 건 다슴애기 주난 다슴애긴 허영 허고, 잘 웬고 보약 웬고, 그런 뜻으로 막 말현 거.

- 핵심어 : 콩데기, 뜻데기, 콩, 뜻, 다슴애기, 생이